

이중부류접사와 어휘부

전 은

I. 도 입

Class I에 속하기도 하고 Class II에 속하기도 하는 소위 이중부류(Dual Class) 접사의 존재는 Aronoff(1976), Szypr(a(1989)에 의해 주목되었다.¹⁾ 가령 -able접사는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으로 Class I접사인 +able 접사와 Class II접사인 #able 접사로 구분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중접사는 보통 동일한 한 접사가 일련의 특수하고 제한된 용법으로 쓰이는가 하면 또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용법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들에 대하여 Aronoff나 Szypr(a처럼 어떠한 접사들이 이중접사로 행동하는가를 단순히 분류, 묘사하는 접근방식이 있다.

한편 그와 같은 평면적 분류는 제한된 용법의 접사나 일반적 용법의 접사 둘다 똑같은 자격으로 존재하여 어느 한쪽에서의 다른 한쪽으로의 선후 관계성을 포착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 중 접사 +able, #able 서로간의 밀접한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느 다른 두 접사끼리의 관계, 예를 들면 +ity와 #ly의 관계나 마찬가지가 된다. Aronoff의 평면적 분류는 그가 애초부터 어휘부 자체를 하나의 단일화된 구조로 되어 있다고 가정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²⁾

본문에서는 이중부류 접사의 방향성과 밀접성을 다룬다. 이들은 각기 두 개의 접사로서 나뉘어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의 접사에서 그 접사가 존속함에 따라 그 용법이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2의 접사가 증식된 것으로 다루어진다. 즉 특수한 용법의 접사에서 그 접사가 존속함에 따라 일반적인 용법의 제2의 새로운 접사가 복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중부류 접사를 해석하는 것은 어휘부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간접적 증거를 제시해 준다. 첫째, 단어뿐만 아니라 접사도 어휘부에 수록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수록된 접사는 이중화와 같은 유기적 과정을 거치는데 어휘부는 그런 관계를 공식적으로 반영 해 줘야 할 것이다. 둘째, 같은 이중 접사내에서 특수한 용법의 접사가 침가된 단어는 일련의 음운 과정을 거치는데 반하여 보편적 용법의 접사가 부가된 단어는 음운 현상과 무관한 점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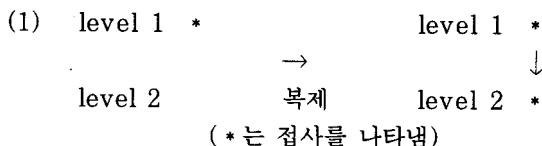
1) Siegel(1974)은 어간의 강세를 변화시키는 -ity, -ation, -ic등의 접사는 Class I으로, 어간의 강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ly, -ness등의 접사는 Class II로 분류했다. 이와 같은 강세의 변화유무에 따른 구분은 형태론적인 기준에 입각한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구분은 되지 못하나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해의 도모를 위해 이 용어가 사용된다.

2) Szypr(a(1989)는 level-ordered 어휘부를 가정했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중접사의 방향성이나 밀접성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않았다.

로 보아 영어의 경우, 어휘부가 하나의 단일한 구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³⁾ 특수한 용법의 접사는 level 1구간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접사가 첨가된 단어는 일련의 음운 규칙의 적용을 받으나 반면에 level 2구간에 수록된 보편적 접사가 첨가된 형태는 어휘음운부 원리상 규칙의 적용이 중단되는 것으로 설명된다.⁴⁾ 세째, 특수한 용법의 접사가 그 용법이 일반화된 새로운 접사를 복제하는 과정은 어느 한 접사에만 적용되는 현상이 아니고 어휘부내에서의 체계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어휘부 고유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어휘부는 독자적인 원리와 체계를 지닌 문법의 한 영역으로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중부류 접사

이중부류 접사는 하나의 접사가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으로 마치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접사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이들은 애초부터 두 종류의 접사로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의 접사가 어휘부에 수록되어 있었으나 그 수록된 접사가 용법이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제2의 새로운 보편적 접사가 복제되어 이중으로 존재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같은 현상은 라틴어 계통의 어원인 -able, -ize, -ive, -ify, -ant/ent등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처음에는 라틴어 계통의 어휘에만 제한적으로 첨가되나 복제된 새로운 접사는 그 제한이 없어지고 순수 일반 영어에 부가된다. 영어의 어휘부가 2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가정할 때 특수하고 제한된 라틴어 계통의 어휘는 level 1에 저장된다. 그 저장된 접사들이 존속함에 따라 제2의 확대된 접사가 level 2에 복제된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1. -ible/able

먼저 -ible/able 접사는 +able과 #able, 두 종류의 접사가 있다는 것은 Aronoff(1976)에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두 접사중 원형접사로는 +able접사라고 간주된다. 왜냐하면 라틴어 계통의 어휘와 관련된 특수하고 제한된 단어는 level 1에 수록되는데, -able 접사는 Old French에서 차용된 단어에서 유래되며 차용된 단어는 level 1에 수록되기 때문이다. 또한 -ate로 끝나는 라틴어 계통의 동사에 -able이 붙는 경우에 +ate 삭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부정접두사로서 level 2의 un-을 취할 수 없고 level 1의 in-을 취함을 보아서도 이는 level 1에 수록됨을 알 수 있다.

3) 이와같은 입장으로는 형태소들간에 선후관계가 존재한다는 Siegel(1974), Allen(1978)의 Morpheme Ordered Hypothesis와 이를 구조적 원리로 택한 어휘음운론자(Kiparsky 1982)가 있다.

4) 어휘부에 있어서의 음운 규칙의 적용은 빈 자리 조건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제안되었다 (전 은 1993). 여기에 의하면 level 2형태에 음운규칙이 중단되는 이유는 빈 자리 조건을 어기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 (2) tolerate — tolerable / intolerable /* untolerable
 communicate — communicable / incommunicable /* uncommunicable
 regulate — regulable / irregulable /* unregulable

또한 라틴어 계통의 단어에 첨가된 -ible형은 그 어간이 /d/에서 /s/나 /z/로 변형되는 등 어간의 형태가 변형되는데 이 어휘들 역시 부정 접두사로서 un-을 취할 수 없고 in-을 취하는 것으로 볼 때 level 1에 수록되어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

- (3) perceptible — imperceptible /* unperceptible
 divisible — indivisible /* undivisible
 extensible — inextensible /* unextensible

그러나 level 1의 이 접사가 존속함에 따라 이 단어들의 구조가 [[동사] able]의 구조로 인식, 분석됨에 따라 [+latinate] 제한이 없어지고 순수 일반 영어에 부가되는 새로운 제2의 접사가 (1)의 과정에 의하여 level 2에 복제된다. 이와같은 level 2의 -able은 단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어휘화된 구에서 부착된다.

- (4) come-at-able / uncome-at-able
 get-at-able / unget-at-able

라틴어 계통의 어휘에 첨부되고 그와 관련된 형태음운론적 변화를 일으키는 level 1의 -able과 달리, level 2의 -able은 그와 같은 특수한 제한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단어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level 1 -able에서 나타났던 형태음운론적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 (5) regulatable — unregulatable /* irregulatable
 educatable — uneducatable /* ineducatable
 demonstrable — undemonstrable /* indemonstrable

(5)의 -able형은 부정접두어로 in-을 취하지 않고 un-을 취하는 것으로 보아 level 2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level 1에서와는 달리 -ate 삭제라는 형태음운론적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level 2에서는 라틴 대 비라틴이라는 어휘적 구분을 하지 않고 모두 똑같이 대등하게 적용되므로 라틴어와 관련된 -ate 삭제현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level 1의 -ible에서 라틴어와 관련되어 나타났던 어간의 변형이 level 2의 -able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6) dividable — undividable /* individable
 defendable — undefendable /* indefendable
 extendable — unextendable /* inextendable

-able이 이와같이 양쪽 level에 이중으로 존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중적인 -able형의 존재가 당연히 가능하다.

- (7) (a) apply — ap' plicable / 'applicable
 recognize — 'recognizable / recog' nizable

- (b) incontrollable — uncontrollable
indescribable — undescribable

2. 2. -ive

-ive 접사도 라틴어 계통의 어휘에서 비롯되며 -ive형의 어간은 라틴어 계통의 어휘에 제한되었었다. 일반적으로 어간의 강세를 변화시키는 -ity와 같은 접사만이 level 1의 접사로 간주되었으나 그와 같은 음운론적 근거는 하나의 피상적인 요인에 불과하며 어느 구간에 속하는 가의 문제는 형태론적인 문제이므로 형태론 자체내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 음운론적인 현상은 거기에 뒤따르는 2차적이고 부수적인 특징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본질적인 특성은 아니다. 근본적인 형태론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와같은 제한적 용법은 level 1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ive는 level 1에 수록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겠다. level 1의 -ive은 우선 독립적인 단어가 아닌 어간에 붙어 나타난다.

- (8) nat · ive
attent · ive
cognit · ive

또한 (9)에서와 같이 어간의 형태를 변형시키고 ($d \rightarrow s$), 부정 접두사로서 level 1의 in-을 취한다.

- (9) decide / decisive — indecisive / * undecisive
offend / offensive — inoffensive / * unoffensive
respond / responsive — irresponsible / * unresponsive

라틴어 계통의 -ate로 끝나는 동사는 level 1의 -ive가 부가됨으로서 강세가 끝에서 3번째 음절에 놓게 되므로 어간의 강세 이동이 나타난다.

- (10) 'demonstrate — de' monstrative
'indicate — in' dicative
'correlate — cor' relative

이 level 1의 -ive형에는 level 1의 -ity 명사형이 가능하다.

- (11) affective — affectivity
destructive — destructivity
emissive — emissivity

이와같은 level 1의 -ive의 존속은 라틴어 계통의 어휘에 대한 선택적 제한이 없어지고 일반 순수 영어에도 첨가될 수 있는 새로운 제2의 접사를 증식하게 된다. 이 새로운 -ive는 level 2에 수록된다. 이 새로운 -ive가 -s나 -t로 끝나는 라틴어가 아닌 native어원의 동사에 첨가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⁵⁾

5) talk처럼 -s나 -t로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ative가 첨가된다.

- (12) sportive
secretive
talkative

level 2에서 형성된 (12)의 -ive형은 예측대로 level 1의 -ity 명사형을 만들지 못한다.

- (13) sportive / * sportivity / sportiveness
secretive / * secretivity / secretiveness
talkative / * talkativity / talkativeness

어휘화된 구에도 다음과 같이 level 2의 -ive가 첨가되면 -ness 명사형만 가능하다.

- (14) stick-to-itive / stick-to-itiveness
stay-at-home-ative / stay-at-home-ativeness

반면에 -ate로 끝나는 동사에는 level 1, level 2 양쪽의 -ive가 붙을 수 있으므로 강세의 위치가 서로 다른 이중형이 존재하기도 한다.

- (15) 'illustrative / il' lustrative
'contemplative / con'templative

2. 3. -ize

-ize형태는 solemnize, harmonize, martyrize등 라틴어 어원의 단어에서 비롯되며, 이 단어들은 level 1에 수록된다. level 1의 -ize접사가 부가되는 예로는 (16)처럼 어간이 독립적인 단어가 아닌 경우에서 볼 수 있다.

- (16) bapt·ize / bapt·ism
minim·ize / minim·al
recogn·ize / recogn·ition

또한 y로 끝나는 라틴어 어원의 명사에 level 1의 -ize가 첨가될 때에는 -y가 삭제된 형태가 나타난다.

- (17) category — categorize
allegory — allegorize
symmetry — symmetrize

또는 -is로 끝나는 라틴어 계통의 명사가 level 1의 -ize에 의하여 동사화되는 경우에는 -is가 탈락된다.

- (18) hypothesis — hypothesize
parenthesis — parenthesize
synthesis — synthesize

level 1에서의 -ize형은 강세가 끝에서 3번째 음절에 부여되며 어간의 강세를 이동시킨다.⁶⁾

- (19) ' dialogue — di'alogize
- ' Arabic — a'rabicize
- ' synonym — sy'nonymize

그러나 이 접사가 존속함에 따라 (20)에서 보다시피 제한된 용법의 -ize에서 순수 일반 영어에도 부가될 수 있는 제2의 접사가 탄생된다. 이 새로운 접사는 level 2에 수록된다.

- (20) lionize
- womanize
- workmanize
- Englishize

-ize 접사가 level 1, level 2 양쪽에 존재하므로 음운론적으로 이중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 (21) (a) 'catholic — 'catholicize / catho'licize
- 'capital — 'capitalize / ca'pitalize
- (b) monophtho [ŋ g] ize / monophtho [ŋ] ize
- diphtho [ŋ g] ize / diphtho [ŋ] ize

ca' tholicize와 ca' pitalize형은 level 1에서 형성된 것이며 끝에서 3번째 음절에 강세가 부여되었다. 반면에 어간의 강세를 그대로 보존한 'catholicize와 'capitalize는 level 2에서 형성된 것이다. /ŋ/뒤에서의 /g/음은 level 1에서는 탈락되지 않고 level 2에서는 탈락된다 (Borowsky 1986). monophthongize나 diphthongize형태에서, [g] 음이 발음된 형태는 level 1에 수록된 형태며, 반면에 [ŋ] 음이 탈락된 형태는 level 2에서 형성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ize 형태에서 나타나는 (22)에서와 같은 음운현상의 차이도 설명된다.

- | | |
|------------------------------------|------------------|
| (22) (a) thea [tr] ize(thea [tə]) | (b) so [bər] ize |
| idola [tr] ize(idola [tə]) | win [tər] ize |

비음이나 유음이 자음뒤에서 음절주음이 되는 현상은 level 1에서는 불가능하고 level 2에서 나타난다 (Borowsky 1986). 그러므로 /r/이 음절주음이 아닌 theatrize나 idolatrize형태는 level 1에 수록된 형태인데 반하여 음절주음이 된 soberize나 winterize는 level 2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ible/able, -ive, -ize 접사이외에도 [+latinate] 제약을 받는 level 1 접사에서 일반 순수 영어에 첨가될 수 있는 제2의 접사가 복제되는 경우는 다수 존재한다. -ify가 level 1 접사로서 -ify가 붙은 형태는 (23a)에서처럼 강세가 끝에서 3번째 음절에 부여되며, (23b)와 같이 제 3음절 연음화 과정 (Trisyllabic Laxing, TSL)을 거친다.

6) dialogize의 /g/, arabicize의 /k/가 -ize앞에서, level 1 형태에 적용되는 제3음절 연음화과정 (Trisyllabic Laxing)과 연구개음 연음화과정 (Velar Softening)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서도 (19)의 형태는 level 1에 수록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 (23) (a) 'syllable — syl' labify
 'solid — so' lidify
 (b) metre — metrify
 clear — clarify

그러나 그와같은 제한이 없는 보편적인 새로운 -ify에 의해서 단어가 형성되었을 때는 (23b)에서와 같은 TSL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24) speech — speechify
 town — townify
 steel — steelify

TSL은 level 1의 형태에 일어나고 level 2의 형태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24)의 형태는 (23b)의 형태와 달리 level 2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3. 어휘부의 구조

여기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어휘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겠다. 첫째, 어휘부에는 구조가 존재하는가? 둘째, 어휘부에는 어떠한 것들이 수록되어야 하는가? 단순어만 기재되고 파생어 및 복합어는 단어 생성규칙에 의하여 도입되는지, 아니면 단순어, 파생어, 그리고 복합어도 기재되어야 하는지의 문제. 세째, 접사는 단어 생성규칙에 의하여 도입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어휘부에 수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중부류접사의 존재는 첫째 문제와 관련된 어휘부의 구조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제시해준다. 어휘부는 하나의 단일화된 평면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라틴어 계통의 어휘 및 그 접사로 이루어진 한 부류와, 또 한 부류는 일반 게르만 계통의 순수 영어등 두 부류로 이루어져 있다. 특수하고 제한된 라틴어계통의 어휘만이 일련의 음운과정을 거친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Siegel (1974)등이 제안한 라틴어 계통의 어휘부가 먼저 선행하고 나머지 일반 순수 단어형성과정이 그 뒤에 진행되는 순차적 구조가 타당하다. 그러나 Siegel (1974), Kiparsky(1982)등은 단순어만 기재되고 파생어 및 복합어는 단어 생성규칙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는 두번째 문제와 관련된 쟁점이기도 하다. 파생어가 단어 생성규칙에 의해서 생성된다면, Aronoff(1976)에서 지적했듯이, 그 규칙에 의해서 예측될 수 있는 규칙적인 의미만 지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동사의 명사형인 transmittal의 뜻은 생성규칙에 의하여 transmit동사로부터 만들어지므로 동사의 의미로부터 유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transmittal은 '자동차의 전동장치'라는 동사의 의미로부터 유추할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Aronoff는 transmittal은 단어생성과정에 의하여 도입되며 그 자체가 어휘부에 존재하며, 따라서 존속함에 따라 의미가 분화되거나 특수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단순어뿐만 아니라 파생어도 어휘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규칙적인 접사 -ly, -ness에 의하여 형성된 단어는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기재된 파생어는 그것의 내부구조가 명시된 채로 어휘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복합어의 경우에도 (25)에서와 같이 음운현상의 차이가 나

타난다 (Allen 1980).

- | | |
|--------------------|-----------------|
| (25) (a) policeman | (b) produce-man |
| Iceland | farm-land |
| Maryland | waste-land |

(25a)의 policeman은 man이 [mən]으로 약화되고 Iceland와 Maryland의 land는 [lənd]로 약화된 반면 (25b)의 produceman은 [mæn]으로 farm-land와 waste-land는 [lænd]로 된다. 똑같은 복합어이지만 어떤 복합어에서는 음이 약화되고 다른 복합어에서는 약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약화된 (25a)의 복합어는 (25b)의 복합어에 비해 'older forms'에 속한다고 한다(Marchand 1960, Allen 1980). 그러므로 복합어는 (25b)와 같이 규칙에 의하여 생성된 경우와 (25a)와 같이 어휘부에 기재되어 있는 두 경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어휘부에 기재된 복합어는 지속함에 따라 (25a)에서와 같이 그 음이 약화되는 등 음의 변화가 나타난다. 세번째 문제와 관련된 어휘부에 있어서의 접사의 수록문제에 대하여 Aronoff(1976)나 Siegel(1974), Kiparsky(1982)등은 접사는 규칙에 의하여 도입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Selkirk(1982), Lieber(1980)는 접사도 어휘부에 기재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사도 존속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접사를 생성함으로 단어와 마찬가지로 접사도 어휘부에 존재해야 할 것이다.

4. 맷음말

동일한 한 접사가 Class I에 속하기도 하고 Class II에 속하기도 하는 이중적 특성을 보이는 이중부류 접사에 대해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분류해왔으나 이 글에서는 이를 영어 어휘부 자체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영어 어휘부는 라틴어 계통의 어휘를 담고 있는 어휘부와 그밖의 순수 게르만어 계통의 일반 영어 어휘부 두 부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라틴어 어휘부에 기재되어 있던 접사가 존속함에 따라 라틴어 어휘부에만 적용되는 제한이 없어지고 순수 일반 영어에도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접사가 증식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접사의 이중화는 Class I접사가 먼저 존재하고 그 Calss I접사가 새로운 Class II접사를 증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이중화의 분석은 접사도 어휘부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어휘부가 두 구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울러 입증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전 은(1993) 빈자리 조건과 영어 어휘 음운론, 서울, 한신 문화사.
- Allen, M. (1978) *Morphological Investiga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Allen, M. (1980) 'Semantic and phonological consequences of boundaries: a morphological analysis of compounds,' in M. Aronoff and M-K Kean (eds) *Juncture*, Saratoga, Cal.: Anma Libri, 9-27.

- Aronoff, M.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MIT Press.
- Halle, M. (1973) 'Prolegomena to a theory of word formation,' *Linguistic Inquiry* 4:3-16.
- Kiparsky, P. (1982) 'From Cyclic Phonology to Lexical Phonology,' in H. van der Hulst and N. Smith (eds)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vol II:131-175.
- Lieber, R. (1980) *On the Organization of the Lexic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 Marchand, H. (1969) *The Categories and Types of Present-day English Word-Formation*, Munchen: C.H. Beck Verlargsbuch handlung.
- Selkirk, E. (1982) *The Syntax of Words*, Cambridge, Mass.: MIT Press.
- Szpyra, J. (1989) *The Phonology-Morphology Interfac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